

지방자치·종합

민주당 “FTA 무효” 투쟁강도 높인다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김종훈 본부장 고발 등 여론몰이 박차

민주당은 28일 합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대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갔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시도당 위원장과 ‘한미 FTA 날치기 무효 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전국 245개 지역 위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갖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미 FTA 반대 집회에 참여, 장외투쟁을 통해 여론몰이에 계속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손규근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날치기 FTA는 원천 무효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이명박 정권은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서명이 남아 있다. 일단

강행처리를 해놓으면 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서명은 날치기에 대한 북인과 날치기 배후 조종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지금 서명하면 안 된다. 미국 의회가 합미 FTA 이행법률을 통과시키며 4가지 법률을 빼뜨렸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 4당과 함께 이 날 28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밝혔다.

야 5당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 서기 회견을 갖고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김 본부장은 여야 간 끝장토론 등을 통해 끝없이 제기된 미국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정보 확인 노력이나 공식적 연구용역 추진이 없었으며 협정 상대국의 협정준수 여부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내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는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미 FTA 반대의 글을 올린 협직부장관사를 공직자 윤리위에 제소한 대법원의 조치를 정면 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조치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판사가 SNS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합법적 자유”라며 “사법부마저 SNS에 재갈을 물리면 이 나라 정의

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미 FTA 발효를 위한 14개 부수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 제출된다. 정부는 법안 공포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부터 미국과 발효 준비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14개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 예금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독점규제·공정거래법, 약사법 등이다. 이를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제처로 보내져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미 공포를 마친 9개 법안을 포함해 합미 FTA 발효를 위한 23개 법안의 제·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노당 강기갑 의원 등 15당 지도부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합미FTA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형법 제122조 위반으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쌀 수급안정’ 외면하는 정부

직불금 상향조정·공공비축미 매입확대 ‘수용불가’

정부가 쌀 소득보전 직불금 상향조정 및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에 부정적 입장장을 밝혔다. 광주·전남 농민들이 정부 양곡 정책에 반발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 운동 및 벼 약시위에 돌입한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통과된 데

따른 반발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나온 입장이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농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통해

▲쌀 소득보전직불금 목표가격(80kg 17만83원→80kg 20만5800원) 상향조정 ▲공공비축미 매입 확대에 대해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농림부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 국회에서 2012년 산까지 5년간 동일한 목표가격(80kg에 17만83원)을 유지하도록 의결했고 목표가격 인상시 쌀 과잉공급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직불금 목표가격을 1만원 인상하더라도 76만㏊를 기준으로 약 3490억 원의 변동직불금이 추가로 들어갈 것

으로 농림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08~2009년 대풍으로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2013년 까지 연간 쌀 20만톤을 감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201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확대에 대해서도 공공비축 물량은 FAO가 권고하는 연간 소비량의 17% 수준인 72만톤을 순환비축 방식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연간 매입량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저소득층 생계 지원·청소년 돌봄 강화”

광주시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종합대책 마련

의 자율후원 참여 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서민들이 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과 공공요금 안정, 경기재료 수급 안정대책, 합당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계층·복지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요율을 사전에 점검 제거하고, 건설현장에서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하며, 폭설시 비닐하우스 등 농업재해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강운태 시장은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행정의 따스한 손길을 펼쳐야 한다면서 가칭 ‘사랑의 겨울나기 운동’을 펼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김선동 “국회 최루탄은 서민의 분노”

민주노동당 김선동(순천)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서민을 대변해 분노와 눈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순천의 사무실에서 ‘한·미FTA와 의정활동 관련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기대한 경제 발전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4년이 지난 지금 무참하게 무너졌고, 이 와중에 한나라당은 서민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확보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치고, 농도 전답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진 변호사, 내달 3일 출판기념회

내년 총선에서 광주 북구 갑 선거구에 출마를 준비중인 김경진 변호사가 다음달 3일 오후 1시30분 광주 북구 풍향동 동신고 체육관에서 ‘문명’ 출판기념회를 연다.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희망 메시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사람들의 희망이 어파해 형태로 반영되어 문명이 발전했는지를 살펴본다.

출판기념회 사회는 최근 무소속 강용석 국회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개그맨 최효종씨가 맡아 즐겁고

유쾌한 이색 출판기념회가 기대된다. 김 변호사는 미래사회에 펼쳐질 문명에 대한 생각을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관객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용화, 경로당 시설 개선 감사패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정용화(사)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은 최근 열린 광주 서구 광천동 인동경로당 회장 김재복 개소식에서 경로당 시설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 이사장은 인동경로당 회원들이 17년간 컨테이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하고 지난 8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유퀵 해 경로당을 아파트시설로 확장·이전하는데 기여했다.

한나라 여성위, 독거노인 돋기 바자

한나라당 광주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지난 28일 광주 상무지구 무각사 주차장에서 이웃돕기 바자였다.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바자에서는 그동안 기부받거나 수집해온 현 옷과 생활용품 등을 시민에게 판매해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여성위원회는 이날 수익금과 그동안 모은 기금을 합친 1000여만원을 김장김치 담그기 봉사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치 1700포기를 담가 1000포기는 광주공원 사랑의 식당에, 700포기는 100여명의 독거노인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휴나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휴나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 외는 비교가 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휴나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약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휴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휴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2011년 서비스 최우수 기관 선정 사진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날선 성기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립출판사 | 김상복 저 |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간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이익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러버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립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옻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 매년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립참옻을 만들었습니다.

옻에 대한 술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옻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직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기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립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